



# 박찬욱 감독 '아가씨' 영국 아카데미 수상

외국어영화상 ... 한국영화로는 처음

배경·인물묘사 등 관능미 눈길

지난해 영국서 20억 흥행수입

박찬욱 감독의 영화 '아가씨'(사진)가 영국 아카데미 외국어영화상을 수상했다.

영국영화TV예술아카데미(BAFTA)는 18일(현지 시간) 영국 런던 로얄 앨버트홀에서 열린 '2018 영국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외국어영화상 수상작으로 박찬욱 감독의 '아가씨'를 선정했다.

앞서 '아가씨'는 폴 버호벤 감독의 '엘르', 안젤리나 졸리가 연출한 '그들이 아버지를 죽였다: 캄보디아 딸이 기억한다', 러시아 감독 안드레이 즈비야긴체프의 '리브리스', 이란 아슈가르 파르다 감독의 '세일즈 맨'과 함께 5편의 후보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영국 아카데미 외국어영화상을 수상한 '아가씨'는 박찬욱 감독의 열 번째 장편 영화다. 박 감독이 '박쥐'(2009) 이후 7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와 연출한 이 영화는 영국 작가 세라 워터스의 '핑거스미스'를 원작으로 했다.

사건들은 귀족 가문 출신 히데코(김민희 분)의 상속재산을 매개로 벌어진다. 어릴 적 부모를 잃고 후견인인 이모부 고우즈키(조진웅)의 보호 아래 사는 히데코에게 백작(하정우)이 접근한다. 백작은 소매치기로 자란 속희(김태리)를 히데코의 저택에 하녀로 투입해 재산을 가로챌 계획을 세운다.

속희를 이용해 히데코를 유혹하고 결혼한 뒤 그를 정신병원에 가둔다는 게 백작의 계략이다. 그러나 박



박찬욱 감독

상 히데코의 시종을 들며 살게 된 속희가 그에게 마음을 빼앗기면서 백작의 뜻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 백작의 음모와 속희의 내적 갈등이 전반부를 이끈다. 영화는 반전을 거친 뒤 히데코의 시선에서 사건을 다시 본다.

원작 소설과 같이 3부로 구성됐지만 시대적 배경을 1800년대 영국에서 1930년대 조선으로 옮겨 각색했다. 식민지 모순과 계급제도, 정신병원이 공존하는 근대화 시기의 풍경을 펼쳐 보이기 위한 설정이다. 히데코와 이모부의 대저택은 이런 이질적 요소들

을 집약해 보여주는 공간이다. 박 감독은 일본 구와 나시에서 일본 전통과 유럽 양식이 섞인 건물을 발견하고 영화의 주무대로 삼았다.

대저택 내부를 묘사하는 유려한 미장센은 '영화의 또 다른 주인공'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류성희 미술감독은 한국인 최초로 2016년 칸영화제에서 미술·음향·촬영 등 부문에서 기술적 성취를 보여준 작품에 주는 '발칸상'을 수상했다. 미국 LA비평가협회(LAFCFA) 역시 외국어영화상과 함께 미술상을 줬다.

'아가씨'는 한국영화에서 보기 드문 파격적 동성애 묘사로도 화제를 모았다. 정사 신보다 속희가 히데코의 입 안에 손을 넣어 튀어나온 이를 골무로 갈아주는 장면이 관능적 묘사의 백미로 꼽혔다.

박 감독은 CNN과 인터뷰에서 "특별히 금기에 맞섰거나 이 영화로 장벽을 깨트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내 영화 뒤에 비슷한 주제를 다룬 영화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가씨'는 평단의 호평을 이끌어냈을 뿐 아니라 흥행에도 성공했다. 2016년 6월 국내 개봉해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이라는 불리한 조건에도 428만명을 동원했다.

영화는 같은해 5월 칸영화제 공식 경쟁 부문에 진출하기 전 이미 120개국에 선반매됐다. 원작 소설이 탄생한 영국에서는 지난해 4월 개봉해 135만 파운드(한화 약 20억원)의 흥행수입을 올렸다.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한국영화 수상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시아권 영화로는 장미여우(張美瑤)의 '홍등', 전카이거(陳凱歌)의 '패왕별희', 리안(李安) 감독의 '와호장룡' 등 중화권 감독의 작품들이 수상한 바 있다. /연합뉴스

# 고두심, tvN '나의 아저씨' 합류

나문희, 스케줄 조율 문제로 하차

제작진 "시대의 어머니상 적임"

tvN 새 수목극 '나의 아저씨'에 출연할 예정이었던 배우 나문희가 스케줄 문제로 하차하고 고두심(사진)이 새롭게 합류한다.

tvN은 19일 "'나의 아저씨'에서 삼형제의 모친 변요순 역으로 출연할 예정이었던 나문희가 스케줄 조율이 어려워 드라마에 합류하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나문희는 tvN을 통해 "캐스팅 초반부터 역할에 많은 애정을 쏟은 요순 역을 불가피하게 내려놓게 돼 매우 아쉽고 안타깝다"며 "하지만 '나의 아저씨'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애정해주셨으면 한다"고 전했다.

tvN은 "요순 역은 고두심이 맡기로 했고 곧 촬영에 돌입한다"며 "시대의 어머니상을 연기하게 될 요순 역에 더 없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 유재석-나경은 부부 둘째 희소식

"임신 초 건강관리 전념"

개그맨 유재석(46)-아나운서 나경은(37) 부부가 두 아이의 부모가 된다.

유재석의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는 19일 "나경은 씨가 최근 둘째를 임신한 게 맞다"며 "위낙 임신 초기인 단계라 건강 관리에 전념하고 있다. 유재석이 좋은 소식을 들려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해왔다"고 밝혔다.

유재석-나경은 부부는 2008년 7월 결혼, 2010년 5월 첫아들을 얻은 뒤 8년 만에 둘째 소식을 전하게 됐다.



나경은 ▶

TV 프로그램 20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 속으로 (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굿모닝 평창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역류	2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10 닥터 365 15 해피 시스템즈 55 평창 2018
9	30 KBS 뉴스 40 평창올림픽 라이브	00 파도야 파도야 40 여기는 평창	00 2018 평창동계올림픽	
10				00 평창 2018
11				35 SBS 뉴스 45 평창 2018
12	00 KBS 뉴스 10 평창올림픽 라이브			
1	45 평창 동계올림픽 특집다큐 원 바다! 물씨들의 반란 (재)			
2	40 평창 동계올림픽 특집 2부작 드림골프 (재)			
3	30 팔도밤상(재)			
4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KBS 재난방송센터 (재) 10 영상앨범산 (재) 40 닥터 하우스	00 5 MBC 뉴스 15 생방송 빛날	00 SBS 오뉴스 45 KBC저녁 뉴스
5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클럽 우리 사는 세상	40 여기는 평창	00 2018 평창동계올림픽	00 생활의 달인 40 평창 2018
6	00 KBS 뉴스 7 35 평창 동계올림픽 특집다큐 팀 코리아! 끝나지 않은 도전			
7	25 미워도 사랑해			
8	00 KBS 뉴스 9 40 평창올림픽 라이브	00 1대 100	05 MBC 뉴스데스크	00 SBS 8 뉴스 40 KBC 8 뉴스
9		00 라디오 로맨스	00 다시 만나는 하얀거탑 UHD	00 키스먼저 할까요?
10			10 휴먼 다크 사람이 좋다	
11	00 KBS 뉴스라인 30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하이라이트			
12		20 설 기회 더 유닛 스페셜 쇼 (재)	15 평창동계올림픽 하이라이트 평창, 우리의 밤	20 평창 투나잇 50 나이트라인

EBS 1			
05:00 왕초보 영어	09:40 장수의 비밀(재)	15:30 오드북, 이상한 아이들	20:40 다크오늘
05:30 세계전문록 아틀라스	10:30 한국기행(재)	15:45 부릉부릉! 브루미즈	<방송이 조개, 성개>
(알고산맥 프랑스 몽블랑)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6:00 얼마 까두리	20:50 세계테마기행
06:00 한국기행(재)	(소고기 무나물과 콜라비 깍두기)	16:15 두다다콩	<타이완, 그 섬에 닿으면 2부>
06:20 세계테마기행(재)	11:20 세계테마기행(재)	16:30 방귀대장 뽕뽕이(재)	고산 소수민족 루카이족 만나다
07:00 강철소년대 파이아로보	12:00 EBS 정오 뉴스	16:45 당동당 유치원1~2(재)	21:30 한국기행
07:30 로이와 함께 하는 소방안전 이야기	12:10 미스터리 휴먼 다크	17:15 로이와 함께 하는 소방안전 이야기	EBS 다크프라이
07:45 총동! 슈퍼웍스	12:40 세상의 모든 법칙(재)	17:30 호기심 소녀 도트	<함반도 대서사시 나무 2부>
08:00 당동당 유치원1~2	12:45 메디컬 다크-7요일	17:45 띠띠뽀 띠띠뽀	느티나무가 있는 마을
08:30 플라워링 하트	13:40 성난 울고기(재)	18:00 생방송 특!톡! 보니하니1~4	22:45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08:45 방귀대장 뽕뽕이	14:30 정글에서 살아남기	19:00 몬카트	23:35 메디컬 다크-7요일
09:00 몬카트	- 화산섬의 비밀	19:15 정글에서 살아남기	24:25 세상의 모든 범죄
09:15 소피 루비	15:00 우주탐험가 잭	19:30 EBS뉴스	24:30 한국영화특선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	15:15 꼬마기사 마이크	19:50 극한직업	<더 테러 라이브>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2월 20일(음 1월 5일 癸未)

<b>子</b>	48년생 전체를 아우르려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60년생 행운이 코앞에 당도하였으니 문을 열고 맞이하여라. 72년생 가치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일에 몰두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84년생 주어진 기회를 활용해 보는 것도 괜찮다. 행운의 숫자 : 87, 77	<b>午</b>	42년생 미진하다면 보충하라. 54년생 빈 곳부터 채워주는 것이 낫겠다. 66년생 김홍이 교차하면서 부침이 심할 수 있다. 78년생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실리를 취하는 것이 합당하다. 90년생 걸 모습은 별로지만 실상은 양호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1, 83
<b>丑</b>	49년생 자신부터 열린 마음으로 대하고 불 일이다. 61년생 어떻게 처세하느냐에 따라서 천왕지자가 된다. 73년생 민첩한 순발력이 필요한 지경에 이르렀다. 85년생 마음은 있으나 행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행운의 숫자 : 63, 91	<b>未</b>	43년생 방도와 해안을 찾아낼 수 있는 여건이 따른다. 55년생 활용 여부에 따라 향방이 좌우될 것이다. 67년생 정확한 의사 표시를 하라. 79년생 동시에 처리 될 것이다. 91년생 쉽게 마음으로 임한다면 효율성을 높일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8, 80
<b>寅</b>	50년생 지금 당장 뒤 쫓아가지 붙잡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넘어 갈 것이다. 62년생 막연하다면 위에서 지켜주기 십상이다. 74년생 절대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86년생 전반적인 물갈이가 예상되니 철저히 대비하라. 행운의 숫자 : 39, 17	<b>申</b>	44년생 꼭 만나야 해결되는 것만은 아니니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보라. 56년생 도전에 불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68년생 원대한 계획으로 임해야 값진 수확을 할 것이다. 80년생 꾸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 행운의 숫자 : 80, 26
<b>卯</b>	51년생 단순한 시각으로 바라보다면 오해할 수 있다. 63년생 망각으로 인해 벌어지는 일 때문에 크게 당황할 수도 있겠다. 75년생 사소한 것에 집착하지 마라. 87년생 공을 들여왔다면 긴히 활용할 수 있는 기회이다. 행운의 숫자 : 99, 62	<b>酉</b>	45년생 불만하다면 개선점을 강구해야 할 것이리라. 57년생 희망한 기운의 진행이 계속되는 운로이다. 69년생 모두가 자신의 마음과 같지는 않아서 무척 힘들 수 있다. 81년생 쉽게 잃어버릴 수 있으니 철저한 대안 강구가 필요하다. 행운의 숫자 : 14, 76
<b>辰</b>	52년생 계획하여 왔던 바를 실행하기에 적합한 때이다. 64년생 비수비수하게 보일 것이니 작음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자. 76년생 중된 것이 주된 것보다 더 비중 있다. 88년생 중용의 입장에서 타협하는 것이 가장 나은 것이다. 행운의 숫자 : 69, 11	<b>戌</b>	46년생 눈에 띄지 않게 조금씩 호전 되어가고 있다. 58년생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특별한 길조가 보인다. 70년생 마음을 가라앉히고 태산처럼 가만히 있으면 될 일이다. 82년생 역량 부족으로 인해 한계에 도달한다. 행운의 숫자 : 58, 40
<b>巳</b>	53년생 활기찬 하루가 될 것이다. 65년생 각자 인생의 성패를 가르는 갈림길에 서게 된다. 77년생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지는 않나 살펴보자. 89년생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므로 쉽게 판단하러 하지 말고 자중하라. 행운의 숫자 : 60, 93	<b>亥</b>	47년생 내부 사정까지 살펴야 무리가 없었다. 59년생 추측만으로는 화를 자초할 수도 있으니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하라. 71년생 재수불공 한다면 소기의 이익을 취할 수 있다. 83년생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니다. 행운의 숫자 : 05, 24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